

신약 역사, 문학, 신학

세션 17: 서론. 요한에게, 믿음, 와인, 그리고 신으로서의 예수

Ted Hildebrandt 박사의 글

#### A. John 리뷰 [00:00-3:25]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절 전 토요일이고 요한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션에서 요한이라는 인물, 혹은 저자, 혹은 책의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고, 요한복음이 매우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빛의 절기 또는 헌신의 절기라고도 하는 하누카 절기까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형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요르단 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와 목격자가 알아차릴 만한 다른 종류의 것들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것은 여섯 번째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이것은 아홉 번째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나열합니다. 그는 정확한 시간을 나열하는데, 이는 목격자와 팔레스타인인, 유대인인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와와의 특별한 친밀함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별명을 붙인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고, 그 별명은 그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는 낚시를 하러 갔고, 20장에서 달리기 경주가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게 추월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베드로와 가까웠고, 낚시를 했고, 갈릴리와 그런 종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마지막 만찬에서 그리스도와 특별한 친밀감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베드로보다 예수와 더 가까이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베드로는 이 제자에게 “누가 우리를 배신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중개자로서 사랑하신 이 제자를 통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겐세마네, 죽은 소녀의 부활, 변형을 포함한 많은 상황에서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 사람의 핵심 동아리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이 제자에게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머니를 돌볼 것이라고 정말로 신뢰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경주에서도 그 사람은 아마 더 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어머니를 돌보라고 부탁할 때는 더 어린

사람을 원할 것이고, 더 나이 많은 사람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제가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 반대하는 또 다른 주장이 될 것입니다.

#### B. 요한에 대한 리뷰: 저자와 제거 절차 [3:25-7:14]

베드로와 요한은 가까운 교제를 가졌습니다. 변형, 게스테마 네 동산, 치유에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도 그들이 불구자를 고칠 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노라.” 사도행전 3:1 이하에서. 그들은 사도행전 4:19에서 산헤드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친밀하고 이 모든 일이 있는 후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제자들을 언급할 때, 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기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초기 교회의 거물들을 꼽을 때,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복음서를 쓸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는 확실히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교회 초기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일찍 그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일찍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마도 예수의 형제일 것이고,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아닐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제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일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은 제자들의 생각

속을 아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그가 한 말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제자들의 생각 속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성경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숙고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고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고 부활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부활이 그들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책을 훑어보면서 Westcott이 개발한 제거 절차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책에 이름이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베드로가 언급되어 있고, 나다니엘도 언급되어 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일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책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어떨까요? 주요 제자들은 모두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마, 나다니엘, 베드로 자신, 책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누구일까요?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면 책 전체에 누락된 빈틈이나 결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은 책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언급되어 있고, 요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 책에는 그런 말이 없고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 니고데모 등을 포함하여 많은 제자들이 언급되지만 요한은 책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책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면 요한이 남는데, 그는 이 책의 저자로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거 절차와 우리가 살펴본 다른 모든 세부 사항을 통해 요한이 요한서의 저자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 **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관계: 요한 일서 3:14과 요한복음 5:24 [7:14-11:16]**

이제, 저는 요한 1서와 요한 1서 사이의 증거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매년 요한 1서를 다룹니다. 저는 그저 놀랐습니다. 왜 저는 그리스어 학생들에게 요한 1서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저는 요한 1서를 쉬운 그리스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는 적은 어휘를 사용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재활용하며 같은 것을 두 번 말합니다. 그는 한 번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한 번은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그는 같은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스어에 익숙해지는 1학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

때문에 요한 1서를 읽기가 매우 쉽습니다. 제가 알아차린 것은 요한 1서와 요한이 연결되는 특정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 계시록에는 실제로 "나 요한"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기 교회의 장로 요한을 택한다는 걸 알지만, 그 책에는 "요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 계시록은 특히 요한이라는 이름과 연관이 있는데,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자신을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힌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는 요한 계시록은 자신을 요한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요한 1서와 요한 사이의 이런 연관성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 3:14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줄을 *안다*"고 말하고 "건너갔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Metabainw*, "건너갔다." *Meta*는 "옆에" 또는 "함께"를 의미하고 *bainw* 는 "가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함께 가다" 또는 "건너갔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차했고, 우리는 *metabainw* -ed.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 *metabainw*가 완료 시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완료 시제는 그리스어에서 매우 드문 특별한 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어는 현재 시제나 아오리스트를 매우 오랫동안 사용합니다. 이 완료 시제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드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제와 아오리스트에 비하면 매우

드뭅니다.

그 단어 자체는 원래 신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그 단어의 완료형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두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넘어갔다”는 완료형임을 알려줍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 요한복음 5:24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는 넘어갔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완료형의 *metabainw* 입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에서 *metabainw*가 완료형으로 사용된 유일한 곳입니다 . 그 단어는 어차피 신약에서 드물고 이것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세요. 정확히 같은 어법이라서 희귀한 단어인 *metabainw*가 완료형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metabainw*가 완료형으로 나오는 유일한 곳이며, 관용어와 반복을 좋아하는 작가가 정확히 같은 어법을 사용합니다 .

#### 다. 요한과 요한일서의 관계: 공통구절과 계시록

[11:16-16:1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어디서 나온 말인가?

요한에게서 나온 말인가. 요한은 어디에서 이 말을 사용했는가? *아멘, 아멘 1 egw humin*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 요한 복음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 요한이 사용하는 큰 관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완료형 동사가 있는 곳이 없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기까지”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곳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이든 이 책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좋은 지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 존, 또는 존은 존의 학파에서 쓰여졌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어법을 채택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 텍스트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확한 평행이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것들은 드물고 거기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존의 지표입니다. 그 동사가 그렇게 사용된 곳은 두 곳뿐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24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4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4와 요한복음 16:24 사이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구가 계속 튀어나오고 저는 이런 유사점과 빛과 어둠의 사용을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런 일을 하고 요한일서의 저자는 빛과 어둠 사이에 같은 대조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대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사점은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났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발견되며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일서 3:

9과 요한일서 5:1에서도 사용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셨다”는 이 개념은 요한복음 3장과 요한일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상적인 어법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을 살펴보면, 특히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셨다”는 단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드물고, 매우 드물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어법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그의 서신이 그의 복음서의 유사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인용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들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책 사이에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같은 저자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는 같은 관용구와 같은 스타일로 글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을 요한의 저자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 '니카우'는 기본적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에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몇 번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이 '니카우', 즉 이기는 것이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복해서 나오고, 요한일서 2장 13절과 그 이하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계시록, 이 단어 '니카우', 이 이긴자들을 계시록, 요한 1서, 요한과 연결하는데, 이 셋은

모두 요한 복음 전서 밖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계시록, 요한, 요한 1서를 서로 연결하고 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저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마. 요한이라는 인물: 어부이며 요한의 어머니 [16:11-19:20]**

여기 우리의 기록에서 그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는 어부였고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흥미롭고 저는 올해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이것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다는 것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실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을 고집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 이것은 마태복음 27:56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거기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세 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세 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관이 있는데,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고, 그녀는 갈릴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 나열된 세 여인 중 한 명일 것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갈릴리의 여인들이 예수의 사역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갈릴리의 부유한 가문,

어부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내려와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이 이 사례에 대한 약간의 빛을 비춰준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기억하신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이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제 아들들이 좌우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헬리콥터 엄마가 와서 ‘이봐요, 당신이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제 아이들을 좌우에 앉히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이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종류의 무례하고 갑작스러운 어조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내 왕국에서 내 오른편과 왼편에 가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셨고, 그것은 네가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 여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갑작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그녀의 두 아들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편안하게 느꼈고, 여기서 우리는 그녀가 십자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십자가에 있는 마지막 세 여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여행을 다니며 갈릴리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일을 지원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 □. 왜 12사도인가?[19:20-24:07]

“왜 사도가 12명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12명이라는

숫자를 말하자마자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구약성경을 읽었고, 제가 12명이라고 말하자마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었다면 12지파가 있지만 요셉이 그의 두 자녀인 에브라임과 마나사스를 축복하고, 야곱이 “나는 당신의 두 자녀, 요셉을 입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에브라임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3지파가 있고, 레위 사람들은 땅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고 레위 도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1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모세는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고, 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요슈아는 요단 강을 건너 12개의 돌을 주워서 강을 건넌 후, 여리고와 싸우러 가기 전에 기념비를 세웠고 12라는 숫자는 꽤 중요해졌습니다. 12라는 숫자는 .

여기서 저는 신약학자이자 이런 종류의 것들에 대한 마법사인 친구 데이브 매튜슨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숫자 7을 여러분에게 말하면, 성경에서 숫자 7은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수비학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숫자들은 비밀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숫자의 신비로운 사용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 더 “마법적인” 방식에 접근하고 있고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 7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함, 충만함 또는 전체성의 개념입니다. 매튜슨 박사는 숫자 12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약간 주저했지만 매튜슨 박사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갑자기 떠오르고 “그는 여기서 무언가를 알아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의 12라는 숫자와 12사도. 12명이라는 건 특별한 일인가요?  
 유다가 목을 매달았을 때, 마치 예수께서 12사도를 고르셨지만 별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목을 매달았기 때문에 “아니, 11명이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유다가 목을 매달고 난 후, 그들은 12번째 사도를 찾기 위해 큰 의식을 거칩니다. 그의 이름은 마티아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고 사도가 되기 위한 특정 요건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란 의미대로 “보내진 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1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진 사도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숫자로 12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 지파가 있고 12 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14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12개의 문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12개의 문은 12지파를 상징하지만, 그 도시의 기초는 12사도입니다. 12사도가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기초이고, 문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매튜슨 박사는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가 하나님 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144,000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2의 12승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9:28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 사이에 이런 협력을 설정하셨고, 이 12제자들이 마태복음 19:28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12명이 있고, 사도행전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 **나. 예수와 천둥의 아들들, 폴리카르포스와의 친밀함 [24:07-27:33]**

예수님과 함께한 특별한 상황, 우리는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변형. 죽은 소녀의 부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친밀함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밖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 마을 중 하나에서 거절당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부르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때,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인 세베대가 천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누군가를 무언가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그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속어로 사용하는 이 자질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아들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또는 “무슨 아들”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공백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당신은* 그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멍청이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그들은 매우 열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폴리카르포스라는 사람은 실제로 요한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초기 교부였으며, 제 생각에는 86세입니다. 요한은 예수 당시에는 더 젊었던 것 같고, 요한은 90년대까지 살았는데, 예수가 죽은 후 약 60년 후입니다. 요한은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기 95-98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은 폴리카르포스입니다. 폴리카르포스는 아마도 80년대와 90년대에 요한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세기까지 살았고, 폴리카르포스의 제자는 이레네우스이고, 이레네우스는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처럼,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이레네우스는 폴리카르포스가 자신에게 한 말과 그가 한 말 중 일부를 적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항상 100%가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폴리카르포스는 그의 스승인 요한이 쓴 복음서를 언급하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H. 요한의 날짜와 높은 그리스도론 [27:33-34:48]

D: 합치면 HJ: 27:33-39:02; 그리스도론, 목적, 요 3:16;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 가장 최신의 것으로 보고, 훨씬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는 90년대까지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기름에 끓여 밧모 섬에서 나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의 알카트라즈처럼 그 당시 범죄자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요한복음이 신학적으로 가장 정교하다고 말합니다. 정교하다는 단어는 아마 올바른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급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를 보는 방식은 바울의 글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썼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늘날에도 사실이지만, 요한의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급 관점에 가깝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리스도론을 원할 때, 요한은 그런 종류의 고급 신학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비평가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법사처럼 행동하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나중에 교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만들었다*고 *생각* 한다”고 주입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이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세기 교회를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좋은 선지자로, 마하트마 간디나 스테로이드를 맞은 마틴 루터 킹으로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예언적 인물로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말하자마자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비판이 꽤 많은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너무 많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한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성경 구절을 볼 때 마가복음 1장 1절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야훼를 언급하고 야훼를 언급하는 그 구절들은 예수에게 적용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같은 종류의 내용이 나오고, 바울의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종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의 늦은 날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의 늦은 날짜를 밀어붙이고 이것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것은 “P52”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P52는 파피루스 번호 52이고, 이집트에서 이 파피루스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사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모든 성경

파피루스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사본은 서기 400-600년 또는 그 정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킹 제임스의 기반이 되는 우리의 작은 사본은 서기 900-16세기로 추정됩니다.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쓰여진 언셜체는 서기 400-600년으로 추정됩니다. 파피루스는 서기 400년이나 6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지만,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실제로 발견한 파피루스 중 하나는 서기 1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이 그것을 쓴 지 30년 이내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8:31-33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어디서 찾을까요? 팔레스타인에 파피루스를 두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스라엘에 두면 습기가 너무 많아요.

파피루스란 무엇인가? 파피루스는 섬유질이 있는 식물에서 나온 것으로, 이쪽으로 섬유질이 있고 저쪽으로 섬유질이 있어서 그것을 눌러서 종이를 만든다. 글씨, 문제가 뭐지? 그 종이를 팔레스타인으로 가져가면 습기 때문에 200~300년 안에 망가진다. 이걸 2000년은 버텨야 한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 파피루스를 보존하기에 충분히 건조한 유일한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피루스 더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성경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신약성서에서 따온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터키의 에베소에 있었고, 이 파피루스는 30년 후에 나일강을 따라 이집트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의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이집트까지 꼭 가져와야 합니다.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런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투키디데스, 헤로도투스 등의 다른 고대 문헌 중에 그 사람이 살았던 때로부터 30년 이내의 사본이 있는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고대 세계의 다른 어떤 문서보다 성경에 대한 더 나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때로부터 30년 이내에 요한의 일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요한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썼을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로 가서 3년을 보낸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떠난 후 요한이 들어와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지만 훨씬 나중에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서기 67-68년경에 죽고 요한은 서기 97-98년까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죽고 로마에서 참수당한 지 30년 후입니다.

여기 파피루스 사본이 있는데, 그리스 문자가 실제로 보입니다. 제 그리스어 학생 중 일부는 이 카파, 알파, 이오타를 "그리고"를 의미하는 단어인 *카이로 알아볼 것입니다*. 얼마나 단편적이고 대부분 매우 부서지기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2천 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보면 카메라가 그것을 포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섬유질, 실제로 파피루스의 섬유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와 같은 것에 쓰여 있고 찢개졌지만 글씨가 보입니다. 이것에 쓰인 글을 보면 어디에서 왔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비문학자들에

의해 서기 125년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30년 이내입니다. 수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것이 2000년 동안 묻혀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고 이제 이런 수업에 와서 내가 그것을 올려놓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터넷이 생기면 대영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같은 곳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 1. 요한복음의 목적 [34:48-37:02]

이제 여기서 약간 방향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한의 책을 쓴 네 가지 목적,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BCGGS 두문자어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쓰기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왜 그것을 썼을까요? 저자, 즉 요한이나 그것을 쓴 사람이 있고, 독자가 있으므로 저자와 독자 사이에 상호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왜 그것을 썼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실제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작가의 경우 우리는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과정을 사용하여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보고 그것을 추론합니다. 요한은 추측하게 두지 않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의 솔직함을 좋아합니다. 그는 그저 그것을 바로 테이블에 놓습니다. 요한복음 20:30,

요한은 왜 이 책을 썼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은 기록되었으니,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왜 썼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세상의 책들이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름의 신학을 주목하세요.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의 신학을 주목하세요. 방금 전과를 보았던,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제는 지금 요한에게서도 반복됩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합니다.

#### ㄴ. 요한복음 3:16에 대한 주석 [37:02-39:02]

그런 다음 그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믿는 것과 생명이 연결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3:16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알아차리셨나요?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믿는 사람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사용하는 매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지만 그리스어를 보면 그 단어가 “only begotten”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only begotten”은 부모에게서 “낳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Monogenes* - *mono*는 “하나”를 의미하고, *genes*는 기본적으로 “유일무이한”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sui generis* 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유일무이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더 현대적인 번역본들이 더 정확하게 번역할 것입니다. “독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두었습니다. 글쎄요, 아브라함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이삭이 그의 독생자가 아니라는 걸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 다음으로 많은 아들을 두었는데,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친절한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IV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번역합니다.

## K. 요한복음의 표적기적 [39:02-40:48]

E: KM을 합치다; 39:02-47:22; 요한복음의 표적기적

표적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표적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적 기적이 약 7개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매우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제 딸이 정말 아프네요. 예수님, 와서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당신이 저를 도울 수 있다고 믿지만, 할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봐, 네가 믿는다면 내가 가서 하겠지만, 믿지 않는다면 정신 차려. 네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저는 믿지만 제 불신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믿음이 표적을 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믿어야 고침을 받습니다. 다른 많은 복음서에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는 사람이 믿으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의 책에서 요한이 기적을 그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고, 그 기적 후에 사람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몇 가지를 골라내고, 모든 기적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몇 가지만 골라내고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에 정말로 집중합니다. 그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과 영생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청중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 L. 표적의 기적: 가나의 혼인 잔치 [40:48-42:13]

그 한 가지 예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표적 기적입니다. 이제 2장에서 이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계십니다. 가나라는 도시는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그 사람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상황을 도울 수 있나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이봐, 그게 나하고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좋아, 160갤런짜리 돌항아리를 가져와.”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모두 물로 채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물을 채웁니다. 그는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혼인 잔치의 관리인에게 가져다가 마시게 하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포도주는 160갤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포도주였습니다. 큰 파티였을 겁니다. 사실

마을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 마을에서는 큰 파티였을 겁니다. 그래서 와인은 주지사에게 가고 주지사는 “와, 정말 맛있네.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좋은 와인을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정말 잘 마셔서 별로 맛을 못 본 다음에 나쁜 와인을 내놓는데 당신은 제일 좋은 와인을 마지막에 남겨두었군요.”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물을 와인으로 바꾼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물을 와인으로 바꾸신 가나의 결혼 잔치입니다. 그런데 요한만이 그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적을 행한 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 M. 요한복음의 다른 표적들 [42:13-47:22]

또 다른 기적의 표적은 베데스다 못의 마비 환자입니다. 물이 움직이고 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항상 어느 요일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는 불구가 된 이 사람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것입니다. 항상 안식일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왜 안식일에 침상을 가지고 다니느냐?” “나를 고쳐 주신 분이 침상을 가지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할 뿐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5장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 가상 예루살렘을 온라인으로 개발하려고 방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베데스다 못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 못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는 5개의 덮인 회랑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개의 덮인 회랑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회랑을 지탱하는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 그래서 그들은 요한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덮인

회랑 에 대해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5,000명을 먹이는 일. 5,000명을 먹이는 일의 좋은 점은 네 복음서 모두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특한 기적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5,000명을 먹이는 일은 모든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9장에 나옵니다. “누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에게 죄를 지었기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것은 그의 부모의 죄나 그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파이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눈에 얹고 말씀하십니다. “이봐, 눈먼 사람이여, 실로암 못으로 가거라.” 그런데 실로암 못은 성전 산 위에 있을 때 눈에 진흙파이를 바르고 그 사람은 다윗의 성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정말 긴 여정입니다. 이

눈먼 사람은 실로암 못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는 내려가서 눈에서 진흙을 씻고 돌아와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가 돌아와서 보게 되자 겁에 질립니다. 이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게 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예수가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 이 진흙파이 눈먼 녀석과 큰 논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논란이지.

이 수업에서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요한서에서 독특한 것들인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과 같이 큰 기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눈의 진흙 파이는 예수님이 다시 눈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큰 것입니다.

나사로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나사로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두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신은 사흘 늦게 오셨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왜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장례식에 늦을 거예요, 예수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의 장례식에 늦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강박관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더 헌신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돌을 굴릴 수 없어요. 그는 사흘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쯤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들은 죽음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죽음과 죽음은 그들의 문화에 매우 흔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을 쫓아 내고 장의사가 죽은 사람과 관을 돌보고 모든 것이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들은 죽음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천으로 싸서 향신료를 바르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렸습니다. 살은 썩고 뼈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뼈를 가져다가 뼈 상자, 납골당에 넣거나 벤치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놓였고 뼈는 벤치 아래에 두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들은 그것을 “조상에게로 모아졌다”라고 불렀습니다.

조상에게로 모아졌다는 것은 당신이 녹아내리고 살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당신의 뼈를 가져다가 벤치 아래의 칸에 놓인 조상들과 함께 두었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나사로가 절뚝거리며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나오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예고하는 일종의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큰 기적입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알아야 합니다.

21장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요한 복음의 저자가 정확히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는지 마지막으로 말했는데, 153마리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주장하는 어부의 표식인 듯합니다.

**N. 물에서 포도주로: 성경 속 포도주 [47:22-49:08]**

**F: NU를 결합하다; 47:22-75:28 ; 성경 속 와인**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카나의 혼인 잔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기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수님과 의견이 달라도 괜찮은 토론 중 하나이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포도주를 보는 방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주제였고, 우리 문화권에서도 여전히 큰 주제입니다. 성경은 포도주 마시는 것과 알코올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2장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방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하고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많은, 많은 갤런, 100갤런이 넘는 포도주를 만들어 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술 취함은 죄입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지만 술 취함은 죄라는 말을 하기 전에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을 읽어 보세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기뻐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술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들은 전도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데,

거기에는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지만, 여러분은 사물을 분류해야 합니다. ”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기뻐하심이니라.”

#### 오. 술 취함은 죄이다 [49:08-51:59]

하지만 성경은 술 취함이 죄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거짓말, 도둑질, 그런 것들과 같은 다양한 죄를 나열하고 있으며 술 취함을 그 악 중 하나로 나열합니다. 여러분은 덕과 악이 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될 악 중 하나는 술 취함이라는 악입니다. 술 취함은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11은 “술 취한 자의 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29에는 영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중 하나는 술 취함이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악 목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은 나쁘지만, 술 취함에 있어서도 “그 상황은 어떤가?”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존 웨인의 옛날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 존 웨인은 나가서 인디언 화살이 다리에 박히고 자신의 손으로 화살을 빼려고 하고 다리에 박힌 화살을 빼려고 합니다. 화살을 다리에서 빼기 전에 그는 무엇을 할까요? 글썄요, 그는 위스키를 마십니다. 그럼 왜 위스키를 마실까요? 아시겠죠, 제 아들이 방금 왜 대부분 사람들이 총에 맞으면 죽는지 말했어요. 반드시 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충격 때문입니다. 충격 때문에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몸이 쇼크 상태에 빠지고 그 사람이 쇼크로 죽는 것이지 실제 상처 자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웨인은 위스키를 한 잔 뿔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그는 고통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처럼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맹장 수술을 받고 "마취는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맹장을 잘라낼 것이고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죽이기 위해 술을 마셨고 그런 다음 존 웨인처럼 화살을 뿔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맥락에서 취하는 것조차도 옛날에는 사람이 쇼크에 빠지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는 것은, 이제 알게 되셨겠지만, 그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모든 영화에서 존 웨인은 총에 맞지만,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총에 맞지 않으므로 사람이 총에 맞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어쨌든 술에 취하는 것은 죄이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ㄴ. 성경에서의 음주의 결과: 잠언 31장과 23장 [51:59-55:31]

성경에는 술 마시는 결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지 않고, 사물을 설명합니다. 잠언 31장, 제가 잠언 31장을 말씀드릴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덕이 있는 여인, 또는 “vw”가 떠오르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 레무엘아 , 왕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네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통치자들이 맥주를 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만약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포도주와 맥주를 멀리하십시오. 이것은 어머니의 조언이며, 이 글에서 어머니의 말씀이 반항을 일으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레무엘아 , 왕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네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통치자들이 맥주를 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술을 조금 너무 많이 마시면, 그들의 정의에 대한 도덕적 감각은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떨어집니다.

저는 농구와 축구를 하고, 농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많은 스포츠를 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남자들은 그 시간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남자들은 나가서 의도적으로 여자를 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를 취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여자를 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취하게 하면 법이 정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녀를 취하게 하면 그녀의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란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만, 제 시절에는 그게 바로 그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왕들에게 “ 이것에서 벗어나라. 만약 당신이 지도자인데 술에 취해서 법이 정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해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사실 이걸 좀 유머러스합니다. 잠언 23:3 1-35에서,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거리고 순조롭게 내려갈 때에도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여러분은, 이걸 버드와이저나 다른 광고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거리고 순조롭게 내려갈 때에도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 결국 그것은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독을 먹일 것이다. 네 눈은 이상한 광경을 보고 네 마음은 혼란스러운 것을 상상할 것이다. 너는 넓은 바다에서 자는 자, 삭구 위에 누워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 여러분은 넓은 바다에서 삭구와 돛대가 앞뒤로 움직이는 이 배를 보고, 넓은 바다에서 삭구 위에 누워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 그들이 날 때렸어, ’ 당신은 말할 거야, ’ 하지만 나는 다치지 않았어. 그들이 날 때렸지만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 언제 깨어나서 또 한 잔 할 수 있을까? ” 양을 잡아서 약간의 와인을 주면 그는 갑자기 사자로 변한다. “이봐, 나는 이제 강인한 녀석이야. 날 때려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거야.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 취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와인을 마시고 크고 용감해지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싸움을 걸지 않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몇 잔의 맥주를 주면 갑자기 그 남자가 이제 크고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 술 마시는 것의

**장단점 과 세 가지 종류의 와인** [55:31-59:27] 잠언 23:20에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 . 술 취한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됨이니라.” 술 취한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우리 모두는 술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가난하게 만든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술 취한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졸음은 그들을 누더기로 입힙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과 가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하고, 이런 것에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잠언에는 실제로 이에 대한 몇 구절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와인이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23 이하에서 디모데에게 “물을 마시지 말고 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디모데는 분명히 중동을 여행한 적이 있다면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물을 마시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문화권의 물에는 박테리아가 있어서 2, 3, 4일 동안 설사가 납니다. 왜냐하면 물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 속에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여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물을 마실 거라고 말하지만요? 물을 마시면 아플 테니까, Imodium AD를 충분히 비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병에 담아 둡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고 말합니다. 와인이 박테리아를 죽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위를 위해 약간의 와인을 마시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진통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과 그 뒤를 이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타당한 사람을 데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상처에 와인을 부어 박테리아와 다양한 것들을 치료함으로써 상처를 달래줍니다. 와인은 상처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을 위한 약으로 사용되고 그것을 돕습니다.

성경에는 현재 세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종종 “강한 술”로 번역되는 *셰커*(*sheker*) 와 일반적인 포도주인 *야인*(*yayin*) 이 있고, *티로쉬*(*tirosh*) 가 있습니다. *티로쉬*는 “새 포도주”로 알려져 있으며, 강한 포도주, 일반 포도주, 새 포도주를 의미하는 세 단어 *셰커*(*sheker*) , *야인*(*yayin*) , *티로쉬*(*tirosh*) 는 구약성경에 규정된 많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볼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한 술은 분명히 사람을 취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포도주를 사용하여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구약성경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함께 공동 식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14:26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야인*은 축복을 줄 때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9:2에서 정말 흥미로운 Madame Wisdom도 Madame Folly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Madame Folly는 Madame Wisdom과 대조되지만, Madame Wisdom은 청년을 위해 와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Madame Wisdom도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도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의 딸들이 있는데, 롯을 취하게 한 다음 아버지에게서 임신했지만, 그들은 먼저 롯을 취하게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롯을 취하게 하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 R.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 성찬과 금욕 [59:27-64:07]

이제 성경이 알코올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찬은 진짜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마셨어요. 새 포도주였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새 포도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인데, 새 포도주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과 성령이 베드로에게 내려와서 베드로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포도당이나

새 포도주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새 포도주조차도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포도주를 따서 으깨서 주스를 만들면 냉장고가 없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포도주로 유지될까요? 글썄요, "냉장고를 켜세요!"라고 말씀하시죠. 맞아요. 2천 년 전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음으로 몇 가지 일을 했고, 지하에서 몇 가지 일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 주스는 꽤 빨리 새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2, 3, 4일 동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물건은 실제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알코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새 포도주조차도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찬. 예수께서 "이 잔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잔에는 포도주가 들어 있었고 성경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는 성찬 잔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는데, 성공회 교회에 가면 한 잔이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잔을 돌릴 때, 그들이 잔을 돌릴 때, 교회 전체가 한 잔을 마셨기 때문에 모두가 한 잔에서 마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 아플까 봐 걱정했지만, 포도주가 박테리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잔만 돌려서 마셨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에 포도주를 제공하지만, 저는 사과 주스를 제공하는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을 따라 잔에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잔에 담긴 와인은 사실 유월절 예배로 거슬러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유월절 예배를 해왔고 유대인들은 잔에 와인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잔에 와인이 있었고, 무교병인 *마초* 는 유월절 예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회당에 가면 잔에 와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디에서도 금육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금육하는 사람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수업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언급했는데, 민수기 6장을 기억하신다면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과 같은 사람들은 건포도와 포도를 포함한 포도의 어떤 제품도, 와인뿐만 아니라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실인 서약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제단에서 태워 나실인 서약을 완수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실인 서약을 할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포도의 제품을 먹지 않았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는 몇 년 동안 나실인 서약을 한 다음 나실인 서약을 완수할 수도 있는데, 평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나시르인 서약은 구약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시르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와인을 마셨고, 그것이 포도주라 할지라도 나시르인은 포도에서 나온 *어떤 것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고, 즉 그는 나사렛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 S. 힐데브란트 박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64:07-67:07]

성경은 어디에도 금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좋아요, 힐데브란트, 당신은 와인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죠."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문화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오래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매년 20만 명이상이 알코올과 알코올 관련 사건, 사고, 질병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20만 명. 죽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 2년은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보트를 타고 파티를 하다가 로드아일랜드에서 배가 가라앉고 전복되어 술에 취한 세 남자가 익사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에릭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에릭을 가르쳤고, 그는 빨간 머리를 가진 열정적인 청년이었고,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와 정말 친해졌고,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고 그는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크리스찬 콘서트나 다른 곳에서 돌아오는 중이었고, 새벽 2시나 3시쯤에 술 취한 사람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고, 펜실베이니아 시골에서 에릭을 들이받아 즉시 죽였습니다[Monica DeMello, 2013 참조]. 이 모든 사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술 취한 사람은 걸어가지만, 제 친구 에릭은 오늘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그를 때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를 화나게 합니다. 에릭은 앞으로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의대 진학을 준비했고 그럴 만한 두뇌도 있었고, 이 일을 위해 모든 준비를 했지만 술 취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캐런이라는 여성과 상담을 했는데, 그녀의 남편은 술 취한 사람이었고, 그는 집에 돌아와서 2x4 트럭을 타고 술에 취해 집 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들들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2x4를 벽에 박았다고 생각했지만, 술에 취해서 2x4를 벽에 박은 건 바로 그였고, 그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이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와 그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술을 마시는 아버지가 있고, 아내와 아들들에게 학대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저도 정말 흥미로운 것은 Karen, 그녀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항상 술을 마시고 너무 많이 마셔서 두 아들을 많이 해쳤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보고 그의 길에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소년들이 17, 18세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아십니까? 그들도 아빠처럼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 T. 알코올 중독의 악 [67:07-71:02]

추산에 따르면, 이 수치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인들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5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1975년이고, 지금은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은 알코올,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강도 사건에는 얼마나 많은 알코올이 연루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강간 사건에는 얼마나 많은 알코올이 연루되어 있을까요? 폭행? 살인? 그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알코올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살 사건의 3분의 1이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개인적인 입장을 취했고,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많은 것이 지금은 단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러 다니고, 고든 칼리지에서는 제가 캠퍼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식사와 함께 와인을 마실 수 있고, 제가 가르치는 칼리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금주했습니다. 집에 술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알코올 중독을 싫어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싫어요. 제가 말했듯이 제 절친 에릭은 죽었습니다. 캐런의 남편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고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친구인 제 매형 데이비드는 몇 십 년 전에 다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3만 달러짜리 트럭을 몰고 가서 누군가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트럭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었고, 정부는 그가 저지른 일로 그를 쫓았습니다. 그는 결국 우리 집에 와서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그를 보호했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가 우리 밴 뒷부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는 목수로서 전문이었고 제가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는 술과 파티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그의 삶과 잠재력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을 싫어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알코올 중독이 사람이라면 제 수업에 들어와서 제 맨손으로 그것을 죽이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고든 칼리지의 100명의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고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세상을 알코올 중독과 그것이 초래하는 피해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알코올 중독과 그것이 초래하는 피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욕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에릭과 제가 반응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제게는 그런 것입니다. 제게는 아이러니한 일인데, 제 아이들이 다 술을 마셔서 제가 금주 입장을 취하고, ”

음, 당신이 너무 강경하게 행동해서 아이들이 술을 마시게 했어”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아마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정직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예민하고 싶습니다. 제 절친인 나일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아마 지금 68살일 겁니다. 그의 아이들을 회상해보면, 그의 딸이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딸에게 술을 주었는데, 그 여자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중독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20년 정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20년 동안 결혼 생활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 U. 부드러운 금욕, 기독교의 자유, 그리고 더 약한 형제 [71:02-75:28]

저는 부드러운 금욕적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있을 때, 페리, 엘레인과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아파트를 한 달에 45달러에 나눠 가졌습니다. 정말 저렴했고 그들은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오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시나이 반도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주 동안 시나이로 가서 사막을 3주 동안 걸어다닐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우리는 오라의 집에 갔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외국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식사와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오라가 나와서 모든 사람의 잔에 와인을 채웠습니다. 와인을 마시지 않는 것은 그녀에게 모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와인을 마실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보통 마시지 않지만, 그녀에게 불쾌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와인을 마실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취한 척을 했고, 오라의 아파트를 떠난 후에 저는 나가서 이상하게 걷고, 물건에 부딪히고, 취한 척을 했고, 그들은 그저 저를 바라보고, 제가 취한 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글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꽤 가깝습니다. 저는 연말에 우리가 떠날 때 페리와 엘레인이 머물렀고, 그들이 “아, 당신이 취했을 때 기억나요”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속였고, 그것은 다소 우스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12에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제 생각에는 삶에서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항상 선을 넘으려 하고, 선을 얼마나 넘을 수 있는지 보는 데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나쁜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것, 최고의 것에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은 아내와 이야기하고, 가족과

영화를 보고, 가족 및 친구들과 외출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약한 형제의 주장도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그것을 변명으로 삼아 "누구는 술을 마실 수 있으니, 나도 마실 수 있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저는 누구도 저를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저를 시작하게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보고, 그래서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약한 형제에 대해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심이 들면 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다른 큰 질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이 활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당신은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외국에 있고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서리 주변에서 부드러운 금욕의 입장을 취합니다. 내 딸의 결혼식에서 그녀는 샴페인을 마셨고, 나는 샴페인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성찰일

뿐입니다. 추가적인 생각 고린도전서 6:12과 로마서 14장의 약한 형제 논쟁.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저는 그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좋은 것인가, 가장 좋은 것인가, 교화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인가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드러운 금욕이라고 부르고, 주로 제 친구 에릭과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은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금욕을 합니다.

#### V. 요한이 글을 쓴 이유 [75:28-79:11]

G: V-AA **결합**; 75:28-99:03; **요한복음에서의 그리스도의 신성**

이제 요한이 왜 글을 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믿음 때문에 썼다고 말할 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가 글을 쓴 것입니다. 요한이 쓴 측면 중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와 다른 여러 사람이 이것을 케린투스 의 오류와 연결했습니다 . 초기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요한서가 케린투스 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 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케린투스 의 오류 중 일부는 예수가 하나님이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일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기적을 행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영이 예수에게 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인간이며, 그가 부활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만 부활했고, 그가 죽었을 때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에게 내려오는데* , 그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그런 다음 영이 그에게 내려오면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그는 죽고, 영은 그를 떠납니다. 예수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고,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케린투스 의 오류인데 , 예수는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이 아니라 영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그는 신이고 , *그는 신이* 아닙니다 .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집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인 두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 이*고 ,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은 *하나님 이* 아니라 *아고드이십니다* .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열등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요한복음 14:28에서 예수는 하나님 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15에서 그리스도는 창조물 중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맏아들이시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맏아들이셨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라는 단어의 문제점은,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고, 예수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의 존재의 그 시점에서 예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시점에서 그보다 더 크시고, 그의 인간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맏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가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으뜸이라는 의미입니다. 으뜸아들은 영예의 칭호와 같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의 으뜸아들이고 창조의 가장 좋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 나. 여호와와 증인의 잘못된 번역 [79:11-85:07]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호와와 증인이 집에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 " 태초 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 여호와와 증인 신세계역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 말씀 ] 라는 단어는 *하나님* 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1에서 이것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실제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죠. 요한복음을 훑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제가 말할 모든 것을 반박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들은 귀여운 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틀렸지만, 그들은 일종의 세뇌를 당했고, 어떤 식으로든 사물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먹히지 않을 때는 "사실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고 하는 식이에요. 요한복음을 훑어보면서 나오는 신에 대한 진술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 로고스 ]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 테오스 ]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번역되어 다시 만들어진 NIV 번역을 보세요. 가장 최근의 NIV는 2010년에 약간 개편하여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NASB는 매우 문자 그대로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더 자유롭고 동등한 종류의 역동성을 가진 New Living Translation인 NLT는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NRSV는 영국에서 몇몇 뛰어난 학자들이 번역했고 NIV와 다른 번역자들도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ESV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NAB, New American Bible,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도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모든 번역은 일치합니다. 그리스어를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이 모든 번역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의 신세계역을 집어 들고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른 것들을 연구한 모든 학자들이 “아니요. ’ 그리고 말씀은 신이었다’ 고 말했고, 그들은 그들만의 작은 컬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아니요, 이 사람들이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잘못 번역하고 있고 그리스어는 “그리고 말씀은 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잘못 번역했지만,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다른 번역은 가톨릭에서 개신교, 영국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다양한 교파의 여러 사람이 했으며 기본적으로 그것이 그리스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장기적으로 그것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항상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리스어로는 이 뜻이에요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리스어를 모르니까 “글쎄요, 저는 그리스어를 몰라요.”라고 말할 겁니다. 제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위노나 호수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던 곳인데, 집 건너편 해변에

있습니다. 두 딸아이가 위노나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고, 저는 해변에 앉아 햇빛 아래서 딸아이들이 수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이봐요!”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처럼 흥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앞뒤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실수로 “그리스어로는 이 단어가 *ag od* 라는 뜻이에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 정말요? 저는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우연히 가지고 있어서 읽고 있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펼쳐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좀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그에게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거꾸로 건넨 것입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책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뒤집는 것을 보고 싶겠죠? 저는 그에게 거꾸로 건네주었고 그는 그리스어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냥 “그리스어로는 이 뜻입니다” 라고 말했고 마침내 그는 포기하고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책을 똑바로 뒤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스어 나 히브리어에 능통할 수도 있고, 아마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거꾸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는 그리스어를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요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책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어가 번역되어야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들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아름다운 구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잘못 번역했다고 해서 제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요한은 *로고스*가 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정관사 “the”를 빼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어로 우리가 다루는 다른 이유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건 그리스어 수업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어를 수강해야 합니다!

#### X. 요한복음 8:58과 9:38의 신에 대한 진술 [85:07-88:28]

이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58, 문맥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본문에서 발췌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58 예수께서 갈등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면 내 영광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시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압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오십 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고 기뻐하셨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야, 네가 오십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있다”라는 문구를 듣고 유대인을 떠올릴 때, 유대인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돌을 집어서 그를 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무리에게서 빠져나가 숨으셨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돌을 집어서 그를 치려 했을까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제가 “나는 있다”고 말하면 “나는 있는 자이다”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14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있는 자이다.” 이분이 여호와이시므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것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9장 38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구십니까? 인자를 믿습니까?” “선생님, 그는 누구입니까?” 눈먼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를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그를 믿고 *경배하였습니다.*” 경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에게 경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무엇을 할까요? 그는 “일어나. 당신은 나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천사입니다. 당신은 나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반복적으로, 이것은 계시록 19:10에 있지만,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러 가는 경우, 천사가 “일어나 .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방금 치유한 이 눈먼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시는데 ,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집니다.

#### Y. 요한복음 10:30과 20:28의 신에 대한 진술 [88:28-91:36]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10장입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여기는 8장, 9장, 10장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을 읽어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10장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은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니라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제 저는 여러분이 유대인으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은 이 구절을 압니다.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여호와만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은 일신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반성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 그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나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큰 이적을 보여 주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이런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인데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청중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방금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음을 매우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

이제 , 토마스, 요한복음 20:28에서, 여기서 조금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0:28에서 토마스가 의심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봐,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기 전까지는 이걸 믿지 않을 거야” 창이 쫓힌 곳입니다. 예수께서 토마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토마스.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어. 계속해서, 네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봐, 못자국이 있던 곳에. 그리고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진술 중 하나는 요한복음 20:28에서 토마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 **나. 요한복음 밖의 그리스도의 신성 [91:36-95:06]**

요한에서 벗어나서 이것들을 빠르게 살펴보고 싶은데,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함,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다른 구절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과 21:3-7은 이 알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계시고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이시라 .” 그러므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라고 부르고 요한계시록 21:3 이하에서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가 그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마시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사야 48:12로 돌아가 보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4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다음 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알파는 우리의 “a”와 같습니다.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의 “z”와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a’에서 ‘z’까지입니다.” 나는 첫 글자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이제 계시록 22장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17-18로 돌아가서 “내가 그를 보고 죽은 자와 같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 있는 자니 내가 죽었었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 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있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택하신 것과 정확히 같은

칭호이고 예수님은 그 칭호를 자신에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

#### AA. Granville Sharp **규칙과 결론** [95:06-99:03]

이제 그랜빌 샤프 규칙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후서 1:1을 보면 디도서 2:13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곳에서 저는 댄 윌리스라는 사람의 문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댄 윌리스는 아마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스어 학자 중 한 명일 것입니다. 델러스 신학교의 다니엘 윌리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책, *Beyond the Basics in Grammar* 600-700 페이지짜리 그리스어 문법 책은 "the"라는 단어와 정관사, 그리고 명사와 두 번째 명사에 연결된 *kai*가 있을 때마다 첫 번째 명사가 두 번째 명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그랜빌 샤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랜빌 샤프 규칙입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1,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구세주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1입니다. 디도서 2:13으로 내려가 보면, 같은 종류의 일이 일어납니다. "복된 소망. 하늘에 나타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2:13은 이와 같은 종류의 논증을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저 마하트마 간디나 스테로이드를 맞은 마틴 루터 킹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요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려와 나중에 떠난 사람이라고 말한 케린투스와의 갈등을 반박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매우 자주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기독교인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시작할 때, 우리는 요한서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고 인물 연구를 할 것이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꽤 흥미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 의심하는 도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이 제자가 다른 개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볼 것입니다. 그는 이 매우 다양한 개인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볼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물가의 여인 나다니엘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aith Gerdes 가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